

경희인 - 아침을 여는 사람들 ①

경희의 아침을 지켜온 자부심, “오늘도 제복을 입는 이유”

국제캠 정문 근무자 김성웅 씨

김성수 기자 korkeep@khu.ac.kr

우리학교에는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. 이른 아침,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그들의 땀방울은 우리학교의 아침을 이룬다. 우리신문은 ‘경희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’을 만나봤다. 교정을 거닐면서 무심코 지나쳐왔던 그들의 목소리, 그 속에는 각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. 지금부터 현장에서 마주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.

차가운 어둠을 몰아내고 따스한 햇살이 캠퍼스를 어루만진다.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활짝 봉우리를 틔운 꽃과, 새들의 노랫소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한다. 새벽 6시, 캠퍼스에 아침이 찾아온다. 김성웅 씨는 국제캠퍼스(국제캠) 정문에서 매일, 아침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.

40대 초반, 김 씨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. IMF사태의 여파는 김 씨에게까지 스며들었다. 한창 가정을 책임져야 할 시기였다.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가장들이 그랬듯 김 씨는 몸담았던 기업으로부터 결국 명예퇴직을 선고받았다. “다람쥐 쳇바퀴 돌 듯 뻘한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나왔어”라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웃어넘겼지만, 김 씨의 표정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.

김 씨의 몸이 닿은 곳은 경희대학교였다. 정문에서 경비 일을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. “이 일을 시작했을 때 우정원이 막 공사하고 있었으니까 거의 20년 됐지.” 처음엔 이 일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다는 김 씨에게 어느새 경희대학교의 역사는 인생이 되고 있었다.

김 씨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일찍 시작된다. 오전 6시가 되면 집에서 출발해 40분이 걸려 학교에 도착한다. 규정된 근무 시간은 8시부터지만, 그는 지금까지 한 시간 이른 출근을 지켜왔다.

학교에 도착하면 김 씨는 정문을 한 바퀴 돌아본다.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 담고 나무나 가로등에 붙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떼어낸다. 교문 앞 불법 주차차량엔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해결한다. 이 과정은 마음을 다잡는 일종의 아침 의식이다. “산책 겸 한 바퀴 둘러보면서, 잘못된 것 있으면 미리 바로잡으려고 그러는 거지.” 김 씨의



남들보다 이른 시각, 정문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웅 씨의 모습이다.

물론 원가를 바라고 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,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

작은 배려가 국제캠의 상쾌한 아침을 만들고 있었다.

오전 8시부터는 그의 무대가 펼쳐진다. 하얀 정모와 장갑, 깔끔한 재킷과 목에 걸린 호루라기. 그것이 김 씨의 무대 의상이다. 국제캠 정문을 배경으로 삼아,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절도 있는 수신호를 보낸다. 한 운전자로부터는 “아저씨, 청와대 앞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?”라는 오해도 받아봤다고 한다. “내가 경희대의 첫 인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꾸미는 거지.” 김 씨가 외모에 특별한 신경을 쓰는 이유다.

비가 오는 날에도 우비를 입고 근무를 나선다. 적지 않은 나이(62세)임에도 김 씨는 매년 최선을 다한다. ‘경희대학교’라는 거대한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. 이것은 김 씨가 20년 가까이 초심을 지켜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.

지금은 국제캠 정문을 지키는 터줏대감인 김 씨 역시 처음엔 많이 서툴렀다. 일을 막 시작했을 무렵의 일이었다. 한 학생이 차를 도로 중간에 덩그러니 세워 놓은 바람에 뒤는 꽁꽁 막혔다. 불만 섞인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난무하자 김 씨는 멈춰 있는 차로 달려가 차를 움직여달라고 부탁했다. 묵묵부답이었다. 두 번, 세 번 부탁 해봐도 소용이 없자 결국 김 씨는 큰 목소리로 “학생! 차 빼!”라고 소리쳤다. 그제야 닫혀있던 창문은 내려갔지만, 그에게 돌아온 건 “아저씨 댜네? 경비 주재에”라는 차디찬 말이었다.

경비 일을 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깊게 마음고생을 했다고 한다. ‘내가 꼭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냐’는 생각과 ‘내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’라는 생각이 김 씨의 머릿속을 흔들어놓고 있었다. 그날 퇴근한 김 씨의 눈에 밝힌 것이 막사촌기에 접어든 아들이었다.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서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치 챌 수 있는 나이였다. 김 씨는 그럴 때일수록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. “하찮은 직업이지만,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다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.” 김 씨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준 원동력은 책임감이었다.

그 힘든 날이 김 씨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.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. 생각을 바꿔 더 상냥하고 더 자상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다. “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야. 내가 참고 견뎌야해”라며 되풀이한 다짐은 다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줬다. 시간이 흘러 국제캠을 지키는 베테랑 경비원이 된 김 씨는 최근 근무시간에 아들

로 “학생! 차 빼!”라고 소리쳤다. 그제야 닫혀있던 창문은 내려갔지만, 그에게 돌아온 건 “아저씨 댜네? 경비 주재에”라는 차디찬 말이었다.

경비 일을 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깊게 마음고생을 했다고 한다. ‘내가 꼭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냐’는 생각과 ‘내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’라는 생각이 김 씨의 머릿속을 흔들어놓고 있었다.

그날 퇴근한 김 씨의 눈에 밝힌 것이 막사촌기에 접어든 아들이었다.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서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치 챌 수 있는 나이였다. 김 씨는 그럴 때일수록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. “하찮은 직업이지만,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다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.” 김 씨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준 원동력은 책임감이었다.

그 힘든 날이 김 씨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.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. 생각을 바꿔 더 상냥하고 더 자상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다. “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야. 내가 참고 견뎌야해”라며 되풀이한 다짐은 다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줬다.

시간이 흘러 국제캠을 지키는 베테랑 경비원이 된 김 씨는 최근 근무시간에 아들

을 학교로 초대했다. 자신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, 아빠가 된 아들에게 일에 임하는 태도를 가르쳐주고 싶었다. “아들에게 오랜만에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줬지.” 일에 대한 김 씨의 자부심이 잔뜩 묻어나는 순간이었다.

다른 원동력은 학생들의 마음이었다. 기숙사 퇴사 날짜였는지, 그날따라 큰 짐을 들고 가는 학생들이 많은 날이었다. 그중 양 손에 가득 짐을 들고 땀을 흘리며 주춤주춤 걷는 학생이 김 씨의 눈에 띄었다. 김 씨는 정문 너머 학생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짐을 들어줬다. 김 씨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.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자 그 학생은 다시 김 씨를 찾아왔다. “아저씨, 그때는 고맙습니다.” 이번엔 짐 대신 빵과 음료수를 한 아름 싸들고 왔다.

어느 날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불쑥 경비실에 찾아왔다. 일면식도 없었던 터라 당황하고 있자니 그 학생은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 김 씨에게 선물했다. 그 편지지에는 서툰 글씨체로 ‘아저씨, 너무 수고 많으세요. 감사합니다.’라고 적혀 있었다. 비록 글씨체는 삐뚤빼뚤했지만, 진심은 고스란히 김 씨에게 전달됐다.

김 씨는 그 학생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. “물론 이것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, 지나가면서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.” 우리가 정문 앞을 지나가면서 전한 따뜻한 진심은 그가 초심을 지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힘이었다.

예순 두 살,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가 겁나는 나이이지만, 김 씨에게는 남몰래 간직하고 있는 작은 꿈이 있다. 평소 그는 거리에 있는 걸인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. 그들을 볼 때마다 김 씨는 주섬주섬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낸다. “넉넉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,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꼭 해보고 싶어.” 그는 앞으로 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.

또 다른 꿈은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이다. 20년 동안 지켜온 이곳이 아침의 햇살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것도, 어스름이 찾아오기 전 노을 빛에 붉게 물들 수 있는 것도, 매일 그 자리를 초심으로 지켜온 김 씨의 노력 덕분이다.

“경희 구성원들과 더 길게, 같이 가고 싶어”라는 그의 마지막 말에 세월이 깃든 무게감이 느껴진다.

2019-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안내 및 지급기준

장 학 명	모자이크장학		
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: 2018. 12. 01. ~ 2019. 06. 16. 기간 내 취득 실적(단, 2018-2학기 포인트 기인정내역 제외)• 신청가능 포인트: 최소 100,000포인트부터 최대 2,000,000포인트까지• 포인트 할산 장학금 규모: 100,000원부터 2,000,000원까지(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)• 포인트 할산기준: 1포인트 1원• 교내·외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※ 단, 일부 생활비 장학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음※ 동일한 내역으로 타 장학 수혜시 모자이크장학 수혜불가• 포인트 인정 기준-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표에 의거하여 각 학과, 항목, 등급별로 취득한 실적으로 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- 재학 중 취득한 실적만 인정(휴학 중 취득 실적 불인정)-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 취득 실적만 포인트로 인정※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(항목, 등급, 포인트 내용)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	학업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소속 단과대학에서 심사 후 등급 확정• 단체전, 공동저술의 경우 포인트는 1/4로 계산(점형은 백열 단위에서 절사)• 학기당 최대 1회만 인정• 취득(개)제일: 수상실적은 상장에 기재된 날짜,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학술지 등재일로 인정
장학금 신청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신청자격: 정규학기 재학생 중 전적학기 평균평점 2.0 이상,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(의약 학계열 15학점)• 신청기간: 2019. 06. 17.(월) ~ 2019. 07. 14.(월) 24:00• 신청방법: 종합정보시스템 → 인터넷신청 → 장학/용자신청 → '2019-1학기 모자이크장학' 신청하기 → 개인역량 조회 → 신청버튼 클릭, 완료• 제출서류: 온라인 대체, 별도 제출서류 없음 (단, 단과대학 행정실 요청 시 보안서류를 제출해야 함)※ 포인트 관리: 학생은 본인의 실적을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역량관리에 등록한 후 증명서류를 단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에서 해당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함(메뉴: 종합정보시스템 → 개인정보 → 개인역량관리 → 개인역량 입력)	유 의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봉사활동 인정 기준: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및 사회봉사인종 관리(vrms.or.kr)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으로, 1일 최대 8시간 인정• 봉사활동 인정 제외 사항- 학점 인정 봉사 활동- 교내·외 장학 및 국가교육근로 등 장학생의 의무사항 이수를 위한 봉사활동- 장학금 지원을 받는 봉사활동 및 기타 대가성 봉사활동- 학기당 현월중 2장 인정(창에 5,000포인트)• 사회봉사활동 확인서: 본교 양식과 기관양식 중 선택 제출 가능, 확인서에는 기관의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을 득해야 함-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에서 발행하는 실적인증서 제출 가능• 봉사활동 인정 기간: 2018. 12. 01. ~ 2019. 06. 16.
포인트 인정 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단과대학: 신청서 접수 및 확인, 포인트 인정 처리• 학생지원센터: 포인트 내역 검토 및 장학금 지급	국제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영어항목: 토익, 토플, 텬스, G-TELP, 오픽(OPICs), 토익스피킹, IELTS 중목 인정 불가(택1)• 스페어어항목: DELE, FLEX 중목 인정 불가(택1)• 재학기간 중 동일한 외국어 성적 등급 향상 시 2회까지 신청 가능※ 단,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, 동일항목은 한 학기당 1회만 인정•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의 경우 모국어(외국 거주지 언어) 관련 어학시험 성적 불인정• 외국어/한문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: 2018. 12. 01. ~ 2019. 06. 16. 기간내 취득한 성적증명서
장학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지급일: 2019. 08. 16.(금) (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)	기타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• IT, 한국어, 한국어 항목의 경우 재학기간 중 등급향상 시 2회까지 인정※ 단,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, 동일항목은 한 학기당 1회만 인정• 자격증 인정 기준: 2018. 12. 01. ~ 2019. 06. 16. 내에 취득한 자격증

5월 다섯째 주 (05.27 ~ 05.31)
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

농식품 부활을 위한 농식품 기업, 창업!
사형관을 운영하는 미래인재인양 활동 :)

1. 채용행사, 기업체 리크루팅 및 사회진출 프로그램

행 사 명	일 시	장 소	비 고
[특강] 로스쿨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이해 (박연경 교수)	5.28(화) 15:00-17:00	청운관 306-1호	
[특강] UN 및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이해와 준비 (윤성기 교수)	5.29(수) 14:00-15:00	청운관 306-1호	
[행사특강] 사립대 355년 - '미래 글로벌 인재'의 조건 연사 : 유순진 유엔파트너즈 CEO	5.29(수) 15:00-16:30	청운관 B117호	
[특강] 인턴십의 성공 전략의 비밀 (한준기 교수)	5.30(목) 14:00-15:30	청운관 306-1호	
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설명회 - 채용담당관과의 대화	5.30(목) 15:00-16:30	내요관 103호	
직무탐색 집중교육 '잡(Job)잡(잡)' 1차 - 공기업의 이해	5.30(목) 18:30-21:30	내요관 103호	사전신청 필수
개교 70주년 기념 '경희 쿼츠 아이디어' 공모전	6.9(일)까지 작품 접수	오른캠프(010-8111-0101)에일 접수	

※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참가방법 : 채용담당 - 당일 현장 접수 / 채용설명회: 특강 - 사전신청(종합정보시스템-인터넷신청-연수신청) 또는 당일 현장접수
• 특강진출: 채용담당에 등록 후 현장(신청확인) 입장 또는 미래인재센터에 방문 요청 (사전신청은 필수로 접수 불가)
• 기타 사항은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(교내공지) 및 페이스북-인스타그램, 단과대학 홈페이지 참조

2. 사회진출 지원 맞춤형 컨설팅 (1:1)

※ 대상 : 본교 학부 재학생, 졸업생
※ 상담 내용 :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, 면접질문 지도, 기업 및 직무 분석법, 로스쿨 진학 등

컨설팅인원	분야	장 소	청운관 상담시간	신청방법
이연희	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	오비스홀 355호	목 10:00-18:00	종합정보시스템 사전예약
박인경	로스쿨/공기업/공무원	제1법학관 107-2호	화 09:00-17:00	수업/성적/상담
홍상기	직무기입분석/면접전략	청운관 1층 5번 상담실	월 09:00-17:00	- 상담/성적/상담
오신준	대기업/직무분석	오비스홀 356호	월 09:00-12:00	- 상담/성적/상담
윤정훈	외국기업/영문이력서	청운관 1층 상담실	금 10:00-14:00	- 상담/성적/상담
윤상기	대기업/UN-국제기구/서비스산업	청운관 1층 상담실	상시	-
이종구	금융권/대기업	내요관비서실 330호	-	미래인재센터 문의

※ 주의사항 - 상담 당일 취소 불가 (상담 당일 1일 전까지 가능, 취소 시 전화 연락)
-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상담 2주씩 총액하여 지원(예수)
-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취업상담을 받으신 학생의 상담 교수 참고 바람
※ 2019-1학기부터 학생 이용편의를 위하여 청운관 상담시간을 컨설팅실로로 주1회 미련 (위치 : 청운관1층 2번, 상담실)
컨설팅실 사정에 따라 상담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종합정보시스템 사전예약시 일정 및 장소 확인

3. 미래인재센터 SNS - 취업 및 사회진출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다면? 지금 바로 팔로우하세요!

KHU 알리미 앱	▶ 앱 설치 → PUSH 취업정보 수신 동의 종합정보시스템-개인정보-개인정보관리-PUSH 수신 동의 체크
페이스북 (https://www.facebook.com/khujob)	▶ 페이스북 검색창에 "khu_job" 검색 → "팔로우하기"
인스타그램 (@khu_job)	▶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"khu_job" 검색 → "팔로우하기"
카카오톡 플러스친구	▶ 카카오톡 검색창에 "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" 검색 → "친구추가"

KHU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 (서울C)

홈페이지 job.khu.ac.kr 페이스북 https://www.facebook.com/khujob 이메일 job@khu.ac.kr
연락처 02-961-0167-8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관